

“태풍에 완벽 대응해달라”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 최소화”

익산시의회, 침수위험지역 점검 등 태풍 ‘힌남노’ 대비 당부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은)는 5일 오전 의정간담회를 갖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강풍과 폭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원들이 직접 각 지역구 일선에 나가 침수 위험지역, 제방, 급경사지, 공사장 등을 사전 점검토록 했으며,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하우스를 관리하는 등 주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도록 주문했다.

최중은 의장은 “태풍이 강한 위력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매우 크므로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해 중 앙동 침수피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사전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태풍 ‘힌남노’ 북상 사전대비 철저

군산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개최

군산시의회는 5일 의정실에서 김영일 의장 주재로 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사전대비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시장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지난 호우로 인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 등을 보고받고, 북상하고 있는 태풍으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 피해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점검했다.

시의회 의장단은 이번 태풍은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아주 강력한 태풍과 폭우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별로 비상사태에 들어갔으며, 우리 지역도 인명피해는 물론 기상상황과 해안가 저지대 침수대피, 관내 재해취약 및 주요시설 등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태세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번과 같은 초동대처 미비로 시민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선제적 가동뿐만 아니라 호우·강풍과 함께 풍랑, 해일의 예상되는 만큼 배수구, 맨홀, 옥외기반, 가림막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군산시의회 각 시의원들은 사전 대비 문 제점 파악을 위해 의장단 회의에 앞서 재난 취약지역 현장을 예방하여 주요 도로 배수구 체크 및 재해예방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읍면동 양수기 등 수방시설의 구비 현황, 사용법 숙지 등 비상사태 시 일선부서의 초동대처가 중요한 점을 읍면동 등 일선 부서에 직접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의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시민들에서 들은 사항들을 의장단에서 집행부에 꼼꼼히 전달했다.

정현을 익산시장, 확대간부회의서... “현안 추진 속도” 당부

정현을 익산시장이 민선 8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완벽한 대응과 함께 민생 경제 안정과 현안 업무 추진에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5일 북부청사 다목적 강당에서 부서장급 이상 간부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2년여만에 개최된 이번 확대간부회의는 태풍 ‘힌남노’에 대비한 대응상황 보고와 함께 민선 8기 시정철학과 4대 비전 등을 공유하는 순

으로 진행됐다.

정 시장은 전국이 태풍 ‘힌남노’ 영향권에 접어들어 따라 우선적으로 태풍 경로의 전망 대비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산사태 침수피해 지역 관리와 현장 예찰 등을 강화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 △서동·국화축제 등 익산의 대표 행사와 축제 추진사항 보고 △도시공민 민간 특례사업 추진 △KTX익산역 광역환

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치유의 숲 조성 등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추석을 맞아 물가안정,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정 시장은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폭우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태풍 피해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추석 명절 동안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 간 협력해 분야별 종합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연휴인 만큼 선제적 방역 대책 추진에 고삐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간부회의 이후 정 시장은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정 시장은 금마와 용안의 농가를 방문해 현장 예찰과 함께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배수펌프장과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을 찾아 주요 시설물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태풍 북상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침수피해, 산사태 우려 지역과 함께 강풍에 취약한 옥외의 간판, 공사장 대형 크레인 등 안전관리 사항을 중점 점검하는 등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5일 북부청사 다목적 강당에서 부서장급 이상 간부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태풍 대비 현장방문

경포제수문 등 찾아

강임준 군산시장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근접함에 따라 경포제수문 및 재해예방시설 등을 방문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등과 함께 경포천 배수상태 확인 및 재해예방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태풍 ‘힌남노’는 이날 자정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군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상습 침수지역의 원인을 찾고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 27개 읍면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진점검과 예찰활동을 통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예정돼 있던 청원 전체 회의를 취소하고 현장 대응을 지시 한 바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근접함에 따라 경포제수문 및 재해예방시설 등을 방문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강 시장은 “태풍이 5일 자정부터 6일 새벽 군산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추석 연휴 120 생활민원종합상황실 운영

군산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편성, 운영한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 교통, 수도, 하수, 청소, 보건, 환경, 식품 등 8개 분야 10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특별 편성했다.

비상근무반은 도로 파손, 불법 주차차 차량 지도 단속, 상·하수도 긴급보수, 쓰레기 처리, 비산진료 등을 실시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반전화 120, 핸드폰 063-120으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근무자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연휴기간, 운영하는 병·의원, 보건진료소, 약국, 음식점 등 생활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추석명절 ‘상하수도’ 비상대책반 운영

익산시가 추석 연휴기간 ‘상하수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연휴가 시작하는 9일부터 12일까지 민원처리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매일 근무조 2개반, 7명씩 근무한다. 상수도 급수, 누수, 하수도 관련 생활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방문해 긴급 복구 등 조치할 수 있도록 비상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안정적 물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상수도 관로 등 상수도 시설물의 관리·운영 상태를 사전에 점검·완료했다.

또한 상하수도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을 실시해 수돗물 생산과 깨끗한 물 공급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사업단은 긴 명절 연휴에도 시민들이 상하수도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종 상하수도 관련 사고에 철저히 대비했다”며 “시민들이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 우선의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